

제22대 국회 출범 앞두고 여야 재정비 '박차'

'채상병 특검법'·'정치검찰 특검' 등 대치 예상 대통령 거부권 불구 '국힘' 이탈표 변수 전망 민형배 "정치검찰 사건 조작 여부 규명할 것"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원내지도부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이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는 첫 대면부터 '채상병 특검법'과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 등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로 인해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권은 이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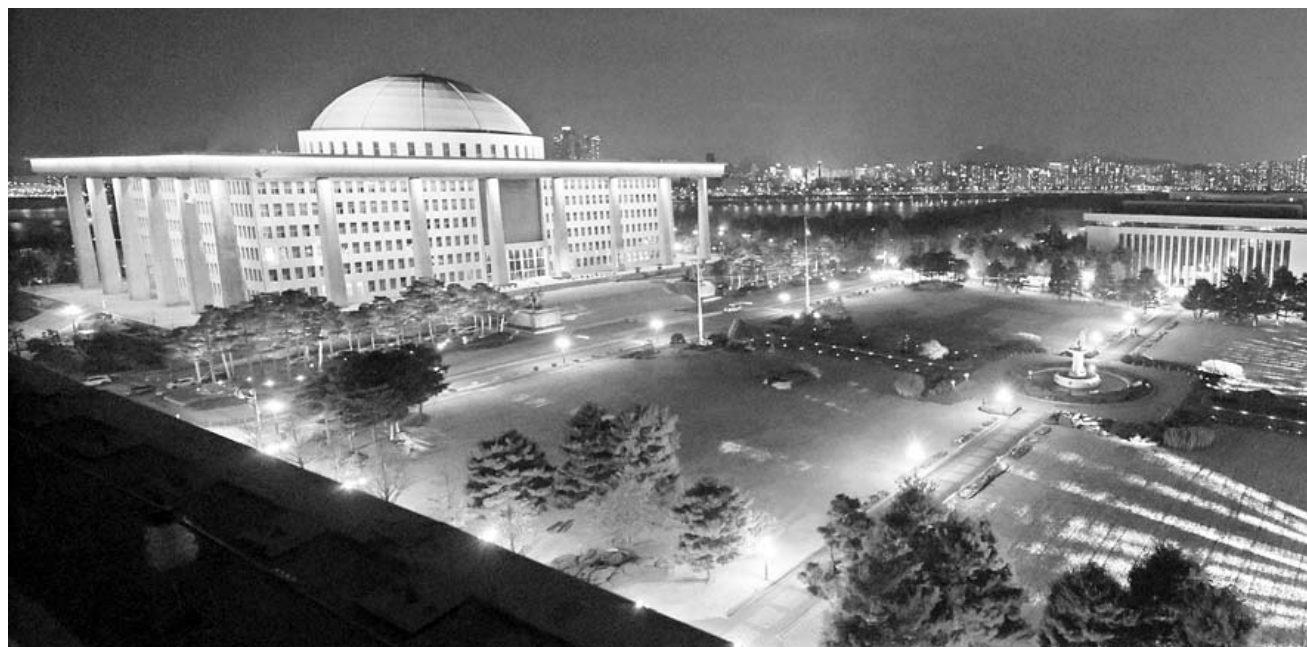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전인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3분의2 이상 찬성을 만들 수 없지만 국민의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 의원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도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4·10 총선 참패 여파로 여당의 일사불란한 단일 대오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원내지도부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연합뉴스

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아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서 부결되더라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

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해서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처단'의 민형배 단장(광주 광산출)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면 기관 방문, 상임 위 헌안 보고 등 국회 차원의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며 "제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2대 국회 기준 17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게 전통이었던 운영위원회와 원내 제2당 몫이 관례였던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온다는 원칙에 따라 원 구성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야 당 출신이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균형 잡힌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김진수기자

尹, 9일 2주년 회견... '불통' 이미지 벗고 돌파구 열까

1년9개월 만에 기자회견...소화·각오 밝힌 후 질문 주제 제한 안들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국정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회견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직접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윤 대통령이 으로서는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 이후 '소통·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변화된 기조에 따른 첫 행보라면, 취임 2주년 회견은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각종 민감한 현안에 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법리상 문제점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김 여사를 전담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여부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이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 앞서 7일째 민정수석실 설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심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번 회견을 계기로 확실한 돌파구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렸다. /연합뉴스

박찬대 "22대 첫 법안 25만원 지원금"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 모두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상

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

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국힘 원내대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당정 관계 입장·대야 투쟁 전략 등 표심 가를 듯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4인이 되는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3인이 되는 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간 3자 구도로 확정됐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다.

한때 단독 출마설까지 나오던 이 의원의 불출마로 경선 구도는 한층 오리무중 상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 주류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현 재로서는 한쪽의 우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당내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인 총회에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이를 날인 9일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